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0년도 포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 교구 · 다락방제도 새롭게 바뀐다

### 새 예배당 시대 맞춰... 성경대학 지도자양성 교육도 강화

새 예배당 시대를 앞두고 교구 편성이 바뀌며 다락방 제도도 전면 새롭게 개편된다. 한편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한 서울성경대학 내 지도자양성반도 새롭게 꾸며진다.

당회는 8일(수) 새 예배당 시대를 앞두고 교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교구 편성과 다락방 조직을 도입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 새예배당 중심 교구 재편

이번에 변경되는 교구 편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새 예배당 주변을 중심으로 12개 교구가 재배치된다. 이에 따라 대치, 개포 지역이 1교구로 편입되게 됐다.

특히 청년, 직장 등 지역 개념을 탈피한 특별교구도 이번엔 도입됐다.

#### 다락방 조직 특성화

다락방제도는 광역 개념을 채택했다. 특정 지역별 조직에서 지역·나이·직장·취미·신앙 등을 고려하여 특성별로 교구 내에서 자유롭게 구성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다락방 명칭도 지역명이 아닌 101, 102 등이나 특1, 특2 등으로 바뀐다.

또 지역 교구에서 독립된 직장 등 기타 다락방 조직도 특별교구가 구성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다락방의 인원 구성은 3-5명(세대) 정도로 세분시키고 모이는 시간도 금요일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새가족부 수료자는 기존 다락방에 소속되거나 필요하면 새 다락방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 20주 교육 반드시 이수

특히 다락방장은 직분이나 성별의 구분없이 자원자를 임명하기로 했다. 다락방장은 지도자양성반의 20주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자격증을 받도록 했다. 다락방장 임명은 우선 10주간 교육을 마친 사람을 다락방장서리로 임명하고 20주 전과정을 이수하고 난 후인 올해 12월에 정식 임명식을 갖고 다락방장 자격증과 임명장을 수여하게 된다.

지역장과 권찰 제도는 폐지되며 교구장도 지도자양성반을 이수한 장로 또는 안수 집사로 임명하기로 했다.

새 교구와 다락방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 지도자양성반 새로 개편

한편 이번 교구 및 다락방 제도의 개편과 더불어 서울성경대학 내 지도자양성반도 교회 부흥을 선도할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해 새로 탈바꿈하게 됐다.

지도자양성반은 수요일 오전반, 수요일 오후반, 목요일새벽반 등 3개반으로 구성되어 20주간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지도자양성반 강의가 진행되는 20주간 동안 수요일 1부 및 2부 예배 그리고 목요일 새벽기도 시간은 지도자양성반 교육에 맞춰 '제자의 도'를 주제로 설교가 있게 된다.

#### 새로 편성되는 교구

교구	지역
1교구	대치, 개포
2교구	논현, 신사, 청담, 압구정
3교구	역삼, 도곡, 양재, 우면, 유곡, 신원, 염곡, 원지, 내곡, 포이, 일원, 수서, 세곡
4교구	반포, 잠원, 서초, 방배
5교구	동작구, 관악구, 과천, 안양, 평촌, 의왕, 산본, 수원
6교구	영등포, 구로, 양천, 강서, 인천, 부천, 김포, 금천, 광명, 시흥, 안산, 시화
7교구	용산, 중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 은평구, 일산, 고양
8교구	성북, 강북, 노원, 도봉, 의정부, 포천
9교구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구리, 남양주, 덕소
10교구	강동구, 하남시, 광주, 양평, 이천, 청주
11교구	송파, 잠실, 가락, 문정, 오금, 거여, 마천, 장지, 방이, 석촌
12교구	분당, 수지, 용인, 수원, 성남, 신갈
특별교구	청년, 직장

이후 2교구부터는 지도자양성반의 교육이 진행돼 20개 주제가 20주에 걸쳐 세미나가 진행된다.

이번에 다루어지는 세미나주제는 한국 교회사, 기도와 능력, 구약개론, 말씀묵상법, 전도의 사명,

문제성도 다루기, 영적지도력, 성경공부 인도법, 이단 연구, 교회의 사명, 신약개론, 시간 관리, 언어와 예절, 성령의 열매, 다락방 운영, 영적전쟁, 종말론, 참된 예배, 중보기도 등 20개이다.

### 제 7학기 서울성경대학 27일 시작

제 7학기 서울성경대학이 3월 27일(월)부터 시작된다.

이번 학기에는 여호수아반, 신명기반, 음악교실, 리더양성반 등의 강좌가 진행된다.

신청서는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으며 등록금은 각 과목당 1만원이고 이번 학기에 처음 수강하는 성도에 한하여 입학금 5천원을 별도로 받는다.

#### 서울성경대학 제 7학기 교과과정표

강좌	요일 · 시간	강사	개강일
여호수아	월 오전 10시 30분	지혜영 전도사	3월 27일
신명기	화 오전 6시	이규정 목사	3월 28일
리더양성반(L.T.C.) *다락방장반	수 오후 1시	이종윤 목사 외	3월 29일
	수 오후 8시 30분		3월 29일
	목 오전 6시		3월 30일
음악교실	목 오전 10시 30분	허희철 집사 이연숙 권사 안진선 선생	3월 30일
	목 오후 7시 30분		

이사야 강해

만국의 심판

이사야 34장 1-4절

본문은 하나님의 대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선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세상을 대적하여 싸우시며 싸움은 심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1.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열국들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해야 합니다(1절).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주목하고 들을 가치가 있는데 이것은 세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셨다는 것을 그들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사 33:13, 암 3:6, 렘 6:17, 시 24:1). 저들을 만드신 자요 그 주인이신 여호와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쟁변은 매우 정당한 것이므로 온 세계는 그의 정당성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미 6:2). 선지자는 교회의 원수들과 민족들이 망한다는 예언을 열국과 모든 만물까지 들으라고 재촉합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 같으나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알아야 합니다.

2.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다

교회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살육당할 것입니다. 살육당할 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 이라고 했습니다.

(1)심판의 선언은 하나님이 치시려는 자들에게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들을 치기 위해 공모하며 마귀의 세력 하에 연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향하여, 심지어는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진노하시고 살육 당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인내로 혜택을 얻었지만 이제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분노

를 예상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 만군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그 만군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능력을 능히 대적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아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 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 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익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사 34:1-4)



이종운 목사

(2)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근거와 이유가 선포되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그는 진노를 내리실 때 결코 불의하시지 않습니다(롬 3:5). 하나님께서 비록 오래 참으신다고 해도 언제까지 참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시온은 거룩한 성입니다. 시온이 당한 모든 원한은 하나님께 맡겨 그가 변호해 주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온에서 은총을 베푸실 때, 곧 정해진 때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사 34:8). 미리 정해진 하나님의 구속의 해가 임하면 교회는 구원을 받고 원수는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 때가 오기 전에는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3. 대중말이 임한다

만상(4절)이란 대중말의 때를 말하며 피조물의 개혁이 오는 때를 말합니다.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는 것은 신천지의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기 위해 구세계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는 물러간다는 뜻입니다(계 6:12-17). 이것은 여섯째 인을 뿜 때 생기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때는

천체와 지상의 대변동이 있을 것입니다(을 2:30-31, 사 34:4, 마 24:29).

요한계시록 6장 12-14절에는 일곱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모든 방법이 총동원되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

는 것은 불신자와 같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한 일에 대한 상급을 받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요 3:18).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해달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 그리고 지진과 같은 것이 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들은 시작일 뿐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눅 21:20). 누가복음 21장 25절 이하에는 자연계의 대격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변혁의 과정에는 네 가지 국면이 있는데 그것은 대지진과 영광스러운 갱신과 놀라운 자기 실현과 완전한 조화입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불에 타도록 예비되어 오다가 하늘이 초자연적 방법으로 불이 붙어서 풀이져서 모든 죄와 악이 사라지는데 이 때 지옥만은 제외될 것입니다. 불은 영광스럽게 새로워진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벧후 3:13, 계 21:1-5, 롬 8:18-22). 그리고 그 때에는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거하며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완전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대 심판의 날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100원이면 한 끼 배부릅니다

중국 두만강변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탈북자들의 절박함을 알립니다.

...중략...

여기 두만강변은 온통 흰눈과 살을 에이는 칼날 같은 바람이 영하 25도의 추위를 실감케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식량을 등에 지고 눈길을 헤치고 헤치면서 10Km를 걸어 탈북자들이 숨어 있는 토굴을 오늘도 찾아 갑니다. 중국 공안원들의 발길이 안 닿는 곳, 북조선의 특무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에 은밀하게 숨기지 못하면 이들 탈북자의 생명이 보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미를 기다리는 어린애들처럼 탈북자 10여 명이 웅크리고 있는 토굴에서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그 토굴에까지도 임하심에 우리 모두는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토굴 속에서 은신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수가 도처에 수천을 넘어 수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케 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 주고 성경책을 손에 꼭 쥐어 주며 기도해 줍니다. (중략) 다행히 우리들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생

명을 부지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중국 공안원에 붙잡혀 북한으로 되돌려 가게 되고 강제 송환된 이들의 참혹한 최후의 비참함이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배고픔은 그들로 하여금 가정도 부부도 없고 오직 생명을 유지하는 길만 찾게 만듭니다. 처녀들은 대부분 창녀로 팔려 갑니다.

이 곳에는 쌀 10kg에 한국돈 3,000원 정도 합니다. 이 쌀 10kg이면 60명을 한끼 먹일 수 있습니다. 부식비까지 해도 한국돈 1만원이면 100명을 한끼 먹일 수 있고 100원이면 한 사람을 한끼 배부르게 먹일 수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폐결핵, 간염, 영양실조로 인한 복수, 아무 것이나 닥치는 데로 입에 넣어서 생긴 장 질환, 동상, 피부 염증, 장티푸스, 등의 질환에 걸려있었습니다. 회충약, 이·빈대약, 소독약, 소염, 항생제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십시오. 옷도 있는 데로 필요합니다. 지금은 겨울용 옷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최소한의 필수품을 여기 중국 현지에서 구해 쓰기도 합니다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의 은총이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교구모임을 마치고

## 주님이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3교구

김명숙(권사, 3교구)

해 별이진 저녁, 아직은 꽃샘 추위로 땀속까지 시린 날! 봄을 신고 온 3교구 식구들은 서로가 물 오르는 소리에 요란하기만 하다. 오랜만에 교구 식구들의 만남은 그것만으로도 풍성한 잔치마당이었다. 이종윤 목사님을 모시고 열정적인 정윤돈 목사님 지도 아래 김상철 장로님의 70여 분 식구들의 따끈따끈한 가족 모임은 더 옹골져 보였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는 흔들어 넘치는 복을 이미 다 받은 것 같은 뿌듯한 표정들이었다.

특별히 새 성전 시대를 맞이하여 3교구가 중심 교구로서 영적으로 성숙하며 준비되어진 모범적인 미래의 1교구가 되어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각성과 새로운 다짐을 촉구하는 매서운 결단의 시간이기도 했다.

2부에는 다락방과 일꾼들을 소개한 후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우리 모두는 주님의 지체이며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사경에서 헤메이시다 새 생명을 찾으신 양태영권사님의 시 낭송으로 주님이 줄로 재어 주신 아름다운 교구임을 선포하는 밤이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교구모임이 김상철 장로님의 모친상을 치르신 옥신적으로 슬프고 힘든 날이었다.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신 장로님 덕택에 교구 식구들은 더욱 감동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모두들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장로님께 보냈다.

마지막 순서로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이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를 힘차게 부르며 새 예배당 건축, 태신자, 교구 일꾼, 새가족, 목사님들 또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을 위해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한 후 모두들 성령충만한 모습으로 마냥 행복한 양과 목자의 말할 수 없는 끈끈한 힘을 더해준 아름다운 밤이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잘 조화된 사랑의 합창이었으리라.

3교구의 부흥을 위해 화이팅!

데마전도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행동하라

스원들은 말했다. "누군가를 귀히 여길 때는 행동으로 하고 남편(아내)들이여 당신의 아내(남편)들이 그들을 귀히 여기는지(살전

5:13) 알고 있는가? 그에게 말한 적이 있는가? 그에게 보여주는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라. 지금 시작하라. 왜냐하면 당신의 아내(남편)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해 기도가 막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큰 애정은 아내(남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이며 축복의 통로다.

남편은 칭찬 받을 때 가장 존경받는다라고 여기게 된다. 성경은 "아내의 바가지는 비오는 날 철새없이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잠27:15)라고 하셨다. 칭찬할 때 관계가 달라진다. 어떤 심리학자는 비난과 칭찬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난 한 번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려면 아홉 번의 칭찬이 있

어야 한다고 했다. 전도자에게 있어 비난은 금물. 다만 열 번 칭찬하는 일이 필요할 뿐이다.

중이에 나의 남편(아내) 좋은 점 20가지를 적어 매일 그것을 읽으며 기도하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남편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공손해지고 순종하게 되고... 어느 날 남편이 그렇게 된 이유를 물어오거든 설교하려하지 말고 "당신 정말 잘 사랑하세요? 예배당에 가면 질과 부로 알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내 곁에 앉아주세요"라고 눈물로 호소하자. 이렇게 해서 가장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 안에서 향유 내음 가득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한다면 믿지 않는 남편(아내)을 위해 기도하며,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보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고전 7:14).

**탈북자를 위한 옷 모으기**

구제위원회(위원장 김광신 장로)에서는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의류를 수집한다.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입지 않는 옷들을 가져올 때 탈북 동포들이 받는 즉시 입을 수 있도록 잘 세탁하고 손질한 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접수는 사무국에서 한다.

최근 탈북한 동포들은 쫓기는 신세가 되어 중국 국경 산악지대에 땅굴을 파고 생활하고 있는데 영하 25도의 강추위에 입을 옷이 없어 얼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관련기사 3면)

**목회자세미나를 위한 기도회**

한국교회갱신연구원(원감 하영수 장로)은 16일(목) 오후 7시 제 1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이종운 목사의 인도로 경건회를 가진 후 봉사자를 위한 지침 전달과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목회자세미나를 위해 봉사할 봉사자 전원이다.

한국갱신연구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원장 이종운 목사

원감 하영수 장로 지도 이성득 목사

교학담당 서문석 장로

사무담당 정동호 집사 회계 여현진 권사

**‘은빛찬양대’ 조직**

65세 이상 성도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은빛찬양대가 신설된다.

찬양위원회(위원장 이영기 장로)에서는 노년기에 속한 성도들에게 인생의 마지막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은빛찬양대를 개설한다.

은빛찬양대는 4월부터 매월 첫째 수요일 1부 예배 시 찬양을 드리게 된다.

은빛찬양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대장 이용선 장로

부대장 백영희 권사

서기 원복순 권사 회계 김용숙 권사

지휘 이보우 집사 반주 홍혜란 선생

**■ 동정 ■**

\* 이종운 목사는 13일(월)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채플에서 설교하며 연·고대 신입생 초청 21세기 비전대회를 연다. 14일(화)엔 총회주제위원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다.

\* 신순우 집사(4교구)는 연·고대 신입생 초청 21세기 비전대회에서 강연한다.

\* 오광환·이안순 집사 가정(12교구)은 교

우리 교회에서는 도심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어린이 찬양예배와 수요예배가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5시에 드리는 어린이 찬양예배에는 점점 더 많은 어린이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3월 첫주부터는 6주간 동안 이영희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예수님께 편지쓰기, 장애자들의 아픔을 체험하기 위한 ‘거꾸로 율리프’, 성경동화구연대회 등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해 즐겁고 다양하게 복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찬양예배에 참여하는 어린이들

겐 여러 가지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 스스로 뮤지컬 배우가 되어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저녁에도 만나요**

어린이 찬양예배는 유아·유

치·유년·초등부에서 자원하는 교사들이 모여 성실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지도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매주일 저녁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된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요일 오후 5시에도 반가운 얼굴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대영 (전도사, 유아부 지도)

역자 가운 4벌을 기증했다.

\* 퇴비·마리아전도회에서 간장과 된장을 담아 교회 식당에 기증했다.

\* 이번 주 식사는 김상철 장로·최원자 권사가 가정에서 제공했다.

\* 베드로선교회는 13일(월)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2000년 태신자 명단(지난 주 계속)

전도자	태신자	전도자	태신자
김관홍 박희영	오광환 김지민 이재형 김민경	김지민 이재형 김민경	이동은
박경원 이소연	이주영 박종환 이승덕	곽재임	강태훈
권오준 심갑택	정효진	최유현	문연주 장윤정
정해원 정효진	김명락	김신영	변주영 장미경
최중시 정의길	이태훈 김병순 이태순	김경숙	오미정 최지원
이종훈 김명락	이지는 소성연 하선주	박경숙	박민정
이태원 이태훈 김병순 이태순	하선경	김혜린	김지랑 이지행 설재환
소은희 이광열	이용우 박우주 박명철	박성우	손경호
이광열 임숙진	김지현	김지영	김지영
하인구 강원형 하극수	박혜리	이은실 최미진 김태욱	박희선
이영희 김애중	곽소은	김민수 김경화 강은경	유신주
이조은 박나리	유성달 방동욱	한영숙 유병철 유현재	이강욱
유복달 방동욱	김중완 신재덕	박우욱	최명희 박애원 최영희
김중완 신재덕	장연순 정서진	박기양	김정연
장연순 정서진	왕경희 박기양	이한결	장윤정
왕경희 박기양	이은희 허은정	최현인	김상팔 이원의 신영욱
이은희 허은정	서지영 최규영 김희정	오세민	오세원
서지영 최규영 김희정	김은혜 이주현 신유경	김지운	신영주
김은혜 이주현 신유경	박원서 최용환 최규백 김창운	서현아	안덕진
박원서 최용환 최규백 김창운	정철운 하영광	이효정	이나영
정철운 하영광	육관영 강희석 김민정	무명1	주차연
육관영 강희석 김민정	진선일 배국수	무명2	한영지
진선일 배국수	신혜영 강태영 천유미	무명3	조영식
신혜영 강태영 천유미	이보람 이무남 이학술 정지현	무명4	이승호 이혜나
이보람 이무남 이학술 정지현	안제명 이우철 배종훈 임종현		

\* 태신자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1부 예배 후에 403호실에서 열립니다.

\* 태신자 명단은 다음 호에 계속 게재됩니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구활성화와 다락방 모임의 부흥을 위해
2. 제 7학기 서울성경대학과 제 1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3. 태신자들과 70인전도대 활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의**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